

# 여야 호프타임 '동상이몽'

##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9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호프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호프타임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연스럽게 세 원내대표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상견례'가 성사된 것이다.

다만 이번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

## 민주당 '추경'

### 적재적시 집행해야 '효과' 이달 예결위 임기 종료전 심사

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장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도 주장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 한국당 '명분'

###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 주장 장외 투쟁서 국회 복귀 명분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으로 대외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된 예산 심사 등을 물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에 나서며 정치적 존재감을 보

## 바른미래 '중재'

### 민주당 '사과'·한국당 '복귀' 요구 대안 정당으로 '존재감' 부각

이려 할 전망이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에 앞서 그동안 극심한 대치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치 국면으로 서로 감정이 많이 쌓은 상태일 것"이라며 "호프타임을 통해 감정을 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법무 비서관 김영식·중소벤처 비서관 석종훈

### 靑 비서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여성가족비서관에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에는 권항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비서관 5곳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이후 첫 청와대 비서관 인사다. 이 가운데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 권항엽 균형인사비서관은 순천여고와 부산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이카데미실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

### 민주당연구원 양정철·백원우 실무 총괄...본격 총선 대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당연구원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 '베이스캠프'가 차려져 주목된다.

양정철 민주당연구원장이 총대를 메고 백원우 부원장과 함께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양 원장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하고, 2016년 야당 대표 당시 김종민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운 배경에 양 원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

양 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의원부터 김병기·조용천 의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사 20명을 영입해 당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맡았다.

이 같은 양 원장의 인재영입 전략에는 이미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노동계·시민사회 인사뿐 아니라 경제 분야 전문가집단,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중에서도 훌륭한 분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평화와 복지를 넘어선 이슈를 선점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양파농가 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단 무안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무안 지역 양파 산지폐기 현황을 찾아 시장적 리 물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5·18 제39주기 기념식을 마친 원내대표단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동해 양파-마늘 등 채소류 작황을 살펴봤다. 원내대표단은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랜드에서 무안농협 노은준 조합장과 서남부 채소조합 배정섭 조합장 등으로부터 양파 생산 현황을 보고 받고 2년 연속 산지폐기 되는 현장을 둘러봤다. 무안에서는 올해산 조생 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도 산지폐기됐으며 지난해에도 양파 가격 하락으로 60.5ha의 양파를 폐기했다.

노은준 조합장은 "올해 무안군 중만생 종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소폭(403ha·2.2% ↑)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작황 호조로 평년 대비 15만1천t이 과잉 생산될 전망"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생탐방에는 이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부대표(경기화성읍), 정춘숙(비례)·박찬대(인천연수갑) 원내대변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도당위원장)·표창원(경기용인정) 부대표 등 13명의 원내대표단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요 당직에 孫 측근...바른미래 다시 '전운'

### 손학규 대표 오늘 인선안 발표 정책위의장 채이배 등 2명 최고위, 바른정당계와 4대 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 등에 맞서 공식인 주요 당직에 측근 인사들을 기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당내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자신과 가까운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앉히는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최고위 멤버 9명 중 한 명이고,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인력·예산 총괄하는 요직이다. 바른정당계의 교체 압박에 맞서 '손학규 체제'를 옹호하려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손대표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총 9명이 참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손 대표 측 4명(손학규·주승용·채이배·문병호), 바른정당계 4명(오신환·하태경·권은희·이준석)으로 팽팽한 구도가 그려진다. 남은 1명의 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은 현 지도부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바른정당 출신 4명의 최고위원과 반드시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깝고도 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부시, 직접 그린 盧 초상화 들고 봉하행

### 10주기 추모식 참석...첫 추도사 낭독자로 나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 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초상화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초상화는 현재 공사 중인 서울 시민센터나 봉하마을 기념관에 상설 전시될 전망이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앞서 5분간 추도사를 낭독하는 것으로 식순이 조율됐다.

/연합뉴스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방수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전원주택 매매

##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